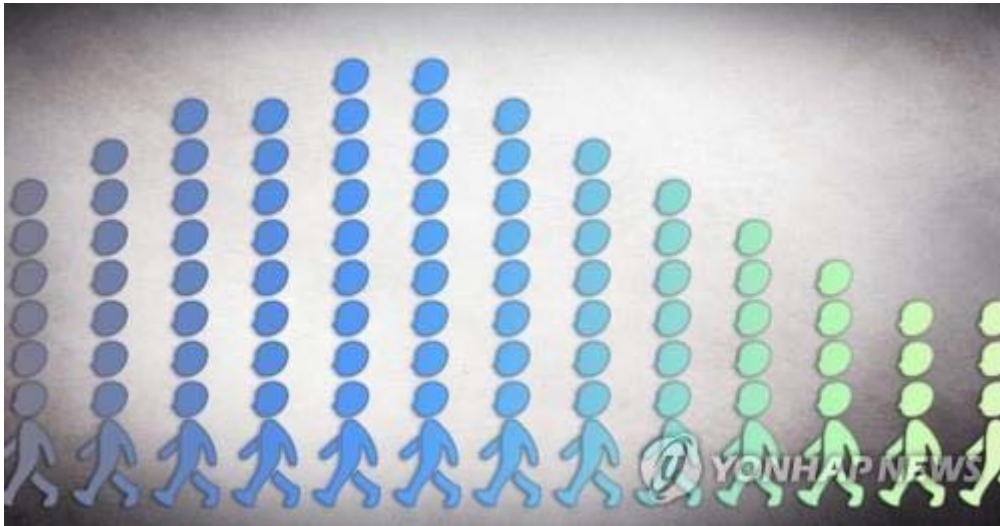


'지방중소도시의 새 발견'...대구사회연구소 기획 포럼

입력 : 2021.09.20 10:01:00



△인구 감소 (PG)

대구사회연구소는 한국도시설계학회 대구경북지회와 함께 '지방중소도시 :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기획 포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대구YMCA 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을 절충한 형태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중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방 소멸위험 현상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균형발전 정책 방향이 세종 행정복합 특별시와 각 지역 혁신도시 조성, 거점도시 육성 정책에 치중한 가운데 인구 5만 명 이상 100만 명 이하 중소도시들이 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다.

포럼은 오는 23일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다.

이날 '지방 중소도시 현황 및 이슈'(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 '경상북도 지방 중소도시 쟁점'(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김용현 연구위원)에 대한 발제 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다음 달 21일에는 '지방 중소도시의 이해'라는 주제로 '축소도시'(LH 토지주택연구원 이삼수 연구위원), '일본 콤팩트 시티'(경북대 건축학부 윤철재 교수)에 대한 발제·토론이 있다.

11월 25일에는 '지방 중소도시의 전략'을 다루며 'EU의 중소도시 발전전략'(대구대 경제학과 김재훈 교수) 등을 소개한다.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은 "중소도시는 적절한 규모로서 집적 효과를 갖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으로 남북미, 유럽에서는 거주 공간이나 제2 또는 제3 도시로서 중요시된다"며 "인구감소 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과 문화발전, 거주 여건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